

독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오래 손꼽는 프랑크푸르트는 이름난 상공업 도시다. 독일인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다는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 연안에 있다. 시내에는 중세시대에 지어진 고색창연한 건물이 많고, 뉴욕의 맨하탄이 연상될 고층건물들도 우뚝 서 있다.

새것과 옛것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이 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집중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된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후 복구에 나선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은 지금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

지 않은 대도시를 건설했다. 지난 봄 이 도시를 방문한 필자는 과거의 아픈 상흔을 이 도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고풍스러움과 현대적인 모습이 균형을 이룬 아름다운 정경만이 시야에 들어왔다.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데 프라이팬이나 철판에 볶거나 불에 굽거나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는다. 이곳에서 사과술과 함께 먹는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맛은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이곳 사람들이 즐기는 건강음식이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 독일 프랑크푸르트 뢰머베르크 광장과 교회

글 · 사진 : 허용선(건강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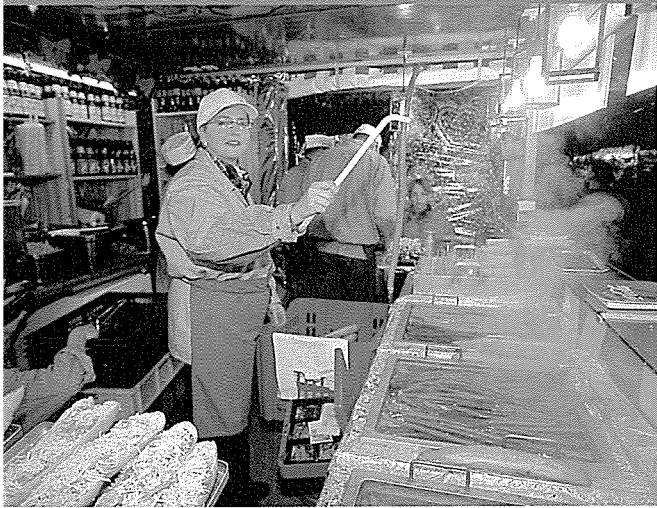
유럽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지리적 이점으로 프랑크푸르트는 선사시대부터 북유럽과 지중해 지역을 연결하고,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교차점이었다. 국제 금융 분야에서 프랑크푸르트는 화려한 전통을 갖고 있다. 13세기 환전상이었던 마이어 암셀로르실트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후 로스차일드가(家)는 이 도시에서 크게 성장했다. 13세기 이후 연방은행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프랑크푸르트로 몰려 들었다. 오늘날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경제의 기관차와 같은 존재로 장려한 전통을

이고 있다.

‘문화의 도시’로도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이름높은 곳이다. 마인강의 여름축제나 성탄축제 같은,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종종 열린다. 시내에 있는 미술관·극장·박물관·대학 등에서 크고 작은 공연이 자주 열린다.

프랑크푸르트 시내 유서깊은 곳을 가 보기로 한다. 로마인의 언덕이란 뜻을 가진 뢰머베르크 광장은 이 도시의 역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곳이다. 이 광장은 프랑크푸르트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주변에는 시청사, 니콜라이

▼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는 맛도 좋고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건강식품



▼ 과거 황제들의 대관식을 거행했던 유서깊은 대성당의 모습



▶ 단란한 독일인의 식사 모습



교회, 바울교회 등이 있다. 광장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집회도 하고 휴식도 즐긴다. 연인들이 모여 앉아 담소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인 강변에 위치한 시청건물 '뢰머'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입구에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신성로마제국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다. 15세기 초에 세워진 시청사에는 정면 발코니 위에 4명의 신성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다. 시청사의 여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로마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대대로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대관식 축하연을 열었다고 한다. 현재 이 방에는 칼 대

제로부터 19세기 초 퇴위한 프란츠 2세까지 총 52명의 황제 초상화가 벽에 전시되고 있다.

18세기 세계적인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태어난 곳도 프랑크푸르트이다. 그는 이 도시에서 자랐으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와 같은 불후의 명작을 저술했다. 프랑크푸르트의 자랑인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황제의 고문관이자 법률가인 아버지와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인 어머니를 부모로 태어났다.

괴테는 시인·극작가·소설가·평론가였으며, 한때는 정치인으로도 출세를 해 바이마르 공화국 재상까지 된 적

▼ 괴테의 집과 박물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같은 명작을 저술한 괴테는 독일사람들이 아끼는 문인이다.



이 있었다. 다재다능한 괴테는 해부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과학자였고, 배우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괴테 하우스(Goethehaus), 괴테가 살았던 생가와 그의 유품을 모은 괴테 박물관이 있는 이곳은 카이저 광장 뒤편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

성 바톨로메우스 대성당(Dom)은 뢰머베르크 광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옛날 이곳은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선거와 대관식이 거행된 신성한 장소였다. 13~14세기 세워진 적갈색의 고딕건물인 대성당은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다. 높이 95m의 거대한 고딕식 탑이 인상적인 이 성당은 내부에 3층의 복도와 14세기 양식의 성가대석이 볼 만하다. 332개의 계단을 따라 성당 꼭대기에 오르면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눈에 잘 들어온다.

마인강의 남쪽에는 작센하우젠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옛날 이 지역을 장악했던 작센 족의 체취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이다. 선술집, 음식점, 상점 등이 많은 이곳에서 프랑크푸르트 명물인 애플와인(사과술)과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다. '벤베르'라고 하는 큰 병의 사과술을 주문해서 잔에 따라 마신다. 술집에 따라선 노래하고 춤까지 출 수 있다. ☺